

제 1 교시

국어 영역 (A형)

[1~2] 다음은 ‘학생자치법정’ 동아리 구성원 선발을 위한 면접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자: 학생자치법정 동아리 구성원 선발에 지원하셨는데, 지원자께서는 학생자치법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자: 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교칙 위반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식을 직접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칙 준수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자: 네, 그렇습니다.

면접자: (지원서를 잠시 확인하고) 지원자께서 특별히 변호인 역할에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자: (면접자에게 묻는 듯이) 혹시 ○○○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잠시 쉬고)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평평 울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 한 번의 실수로 희망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변호인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자치법정 동아리 활동은 저의 꿈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면접자: ○

지원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장점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일반 국민의 시각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면접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그럼, 지원자께서 학생자치법정의 변호인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까?

지원자: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저는 ‘학생 신문고’를 만들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 신문고’를 통해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으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자: (마음속으로) 지원 동기가 뚜렷하고 우리 동아리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동아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어.

1. 위의 답화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답화의 의도를 밝혀 지원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 ② 답화의 목적에 맞추어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한다.
- ③ 지원자의 답변에 보충 질문을 하여 추가 정보를 얻는다.
- ④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 ⑤ 답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자에 대해 평가한다.

2. ㉠에 들어갈 질문은 지원자의 어떤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가?

- ① 동아리 특성에 지원자의 성격이 적합한가?
- ② 동아리에 지원한 동기와 목적이 뚜렷한가?
- ③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식과 교양이 있는가?
- ④ 동아리 부원들과 화합하려는 자세가 있는가?
- ⑤ 동아리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가능한 것인가?

3.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축제의 한 장면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학교의 축제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제를 즐길 준비는 되셨나요? (청중의 함성 소리)

㉠와! 여러분의 함성을 들으니 저까지 흥분되기 시작하는데요. 평소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요 빛입니다.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돼서 공연에 신 나게 참여했다면 좋겠습니다.

축제를 위해 부모님·선생님·학생으로 구성된 그룹사운드, 댄스 동아리, 그리고 ㉢금관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관악대를 브라스 밴드라고 하는데요, 브라스밴드인 ‘드림스타트’ 등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주신 교장 선생님과 큰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참! 공연할 때 방송부에서 촬영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얼굴이 화면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요. 혹시 카메라가 다가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나가’ 하하하. 아셨죠?

㉤첫 번째 참가팀이 준비가 되었다는군요. 자, 그럼 힘찬 함성으로 축제를 시작해 볼까요?

- ① ㉠: 반응을 확인한 후 다음 발화로 넘어가고 있다.
- ② ㉡: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성에 호소하고 있다.
- ③ ㉢: 이해를 돕기 위해 생소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 ④ ㉣: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고 있다.
- ⑤ ㉤: 상황을 점검하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4~5] 다음은 '토요휴무일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토의의 과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원희: 다음 주 우리 모둠의 발표 주제는 '토요휴무일 활용 방안'이야. 토요휴무일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해.
- 수연: 맞는 말이야. 요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토요휴무일을 활용하자고들 하잖아. 그런데 자료를 보면 TV 시청, 컴퓨터 게임 등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눈에 띄어. 그런 학생들이 무려 47%나 되거든.
- [A] 원희: 그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니?
- 수연: 좋은 질문이야. ○○일보에서 전국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야.
- 원희: 출처가 분명하니 그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좋겠다.
- 수연: 좋아. 발표문은 네 말대로 토요휴무일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를 보여준 다음 토요휴무일을 잘 활용한 사례를 들어주면 되겠다.
- 원희: 사례로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산악회와 축구 동아리를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 이 동아리들은 건강에도 좋고 친구도 사귄 수 있고 리더십도 생겨.
- 수연: 그런데, 너무 운동에만 치우친 것 같아. 다양한 사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 원희: 그런가? 하긴 운동을 다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 (잠시 생각하고) 그래, 네 말대로 더 찾아보자. 청소년 단체 또는 복지 단체 등의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면 더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 수연: 그런 후에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해 보자.
- 원희: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문을 쓰다 보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거야.

4. [A]에서 '원희'가 사용한 주된 의사소통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 파악하기
- ②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 판단하기
- ③ 공손성의 원리와 같은 언어규범을 지키며 발언하기
- ④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 요약하기
- ⑤ 가치에 대한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평가하기

5. <보기>를 바탕으로 위 토의에 대하여 반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협력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거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 ① '좋은 질문이야', '그래' 등 서로 교감하며 반응하는 것은 화법의 대인관계적 성격에 해당하는군.
- ② 원희와 수연이가 만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은 화법의 구두언어적 성격에 해당하는군.
- ③ '토요휴무일 활용 방안'이라는 청소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는 화법의 사회·문화적 성격에 해당하는군.
- ④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은 화법의 매체 언어적 성격에 해당하는군.
- ⑤ 원희가 수연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화법의 상호교섭적 성격에 해당하는군.

6. <보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인관계'에 대한 글쓰기를 구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수영은 물에 몸을 띄워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이다. 물의 비중은 1인테 비해 성인의 평균 비중은 0.97이기 때문에 몸에 힘을 주지만 않으면 자연히 물에 뜰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저항을 줄일 수 있게 유선형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뒤쪽으로 물을 밀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허리, 허벅지, 무릎, 발목 순으로 물을 밀어내듯 발차기를 해야 한다. 발차기 연결이 잘되지 않을 때는 가볍게 채찍질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물을 밀어 내면 된다. 이런 모든 움직임이 꾸준하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야 비로소 수영을 할 수 있게 된다.

- ①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할 수 있다.
- ②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③ 뒤에서 기다리기보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 ④ 상대와 문제가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 ⑤ 상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지속적인 호의를 보이면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7. <보기 1>을 보고 ‘전력 수급 위기 극복’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보기 2>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전력 수급 비상, 블랙아웃 가능성 급증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 증가율이 OECD 회원국 평균치의 6배에 달할 만큼 홍청망청 전력을 쓰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국가 전력망이 마비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 즉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 △△신문 -

<보기 2>

I. 블랙아웃 사태㉠

II. 전력 수급 위기의 원인

1. 공급 측면

가. 전력의 비효율적 관리

나. 발전소 설계 기술의 해외 이전㉡

다. 수요 대비 전력 공급 능력의 부족

2. 수요 측면

가. 전력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나. 블랙아웃의 위험성 인식 부족

III. 전력 수급 위기의 극복 방안

1. 공급 측면㉣

가. 전력 과소비 문화 확대

2. 수요 측면

가. 에너지 사용량 강제 감축 할당량 부과

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IV.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촉구

- ① ㉠은 <보기 1>을 근거로 ‘블랙아웃의 가능성 급증’으로 구체화한다.
- ② ㉡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III-1-가’와 위치를 바꾼다.
- ④ ㉣에는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발전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하위 항목에 추가한다.
- ⑤ ㉤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의 장점 홍보’로 내용을 수정한다.

8. <보기>는 ‘국내 헌혈의 문제’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최근 3년간 월별 평균 헌혈 실적 (단위: 건)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적	190,000	180,000	220,000	220,000	250,000	200,000	220,000	220,000	210,000	200,000	240,000	220,000

(나) 직업별 헌혈 실적

직업	비율
학생	57.4%
회사원	16.7%
군인	12%
기타	11.6%
공무원	2.3%

(다) 인터뷰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일일 예비 혈액보유량은 5일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비 혈액보유량은 평균 3.5일분 정도이고, 우리나라에 많은 A형과 O형은 평균 2~3일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헌혈에 참여해 달라는 말에 ‘다음에 하겠다’는 말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야속합니다.

- △△지역 헌혈의 집 ○○○씨

(라) 연구 보고서

외국의 경우, 6월 14일로 지정된 ‘세계 헌혈의 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별로도 ‘헌혈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등록헌혈회원을 모집하고 특별 관리함으로써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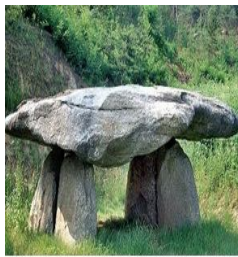
- ① (가)를 활용하여 헌혈량이 불안정한 현황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헌혈이 특정 직업군에 의존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일반인이 헌혈을 기피하는 원인을 부각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1~2월 사이에 특정 혈액형에 대한 헌혈이 특히 필요함을 역설한다.
- ⑤ (나)와 (라)를 활용하여 학생 외 직업군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등록헌혈제 실시를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다.

[9~10] 다음은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이 작성한 감상문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8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의논한 끝에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다. 마침 내가 속한 동아리인 '타임머신'에서는 개항기 외세 침략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는 ㉡선생님의 추천에 의하여 강화도의 초지진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강화도는 청동기 문화 조사를 하기 위해 고인들을 견학했던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달리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친구들과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초지진에 도착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성벽이었다. 요새처럼 만들어진 성벽에서 내려다보이는 갯벌과 바다는 보기만 해도 어찌나 시원한지! 마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초지진 안에 전시된 대포들을 보니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마치 당시 격전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나서 성벽 외곽을 둘러보았는데 포탄의 흔적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병인·신미양요 등 조선 관군들이 적군과 교전을 벌였던 흔적이 성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포탄에 맞은 흔적이 그대로 새겨진 채 우뚝 서 있는 한 그루의 노송(老松)이었다. ㉢사시사철 그 자리에서 있는 소나무를 보니 언제나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가 떠올랐다. 노송(老松)에 깊이 새겨진 포탄의 상흔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 무덤 양식인 고인돌>

체험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냥 들뜨기만 했던 아침과는 달리 '백년도 더 지난 현재까지도 역사의 숨결은 우리 곁에 고스란히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다. ㉣결코 몸은 다소 피곤할지라도 마음만은 마치 시간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왠지 모를 긴 여운이 남았다.

9. [A]를 쓰기 위해 학생이 계획한 세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의인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표현한다.
- ㄴ. 영탄법을 사용하여 풍경에 대한 느낌을 강조한다.
- ㄷ. 도치법을 사용하여 대상에서 느낀 감정을 드러낸다.
- ㄹ. 생략법을 사용하여 체험학습에 대한 여운을 남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0. 윗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부사어 '친구들과'를 추가한다.
- ② ㉡은 번역 투이므로 '선생님께서 추천하셔서'로 고친다.
- ③ ㉢은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중심 내용에 맞는 사진으로 교체한다.
- ⑤ ㉤은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아마'로 수정한다.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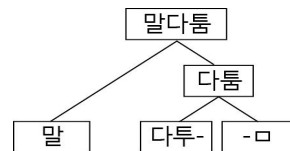
<보 기>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① 먹히다 ② 발머리 ③ 숨이불 ④ 좋으면 ⑤ 한여름

12. 단어의 계층 구조가 <보기>와 같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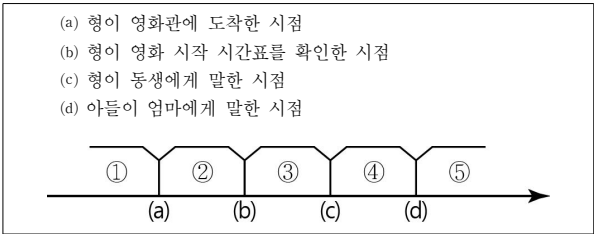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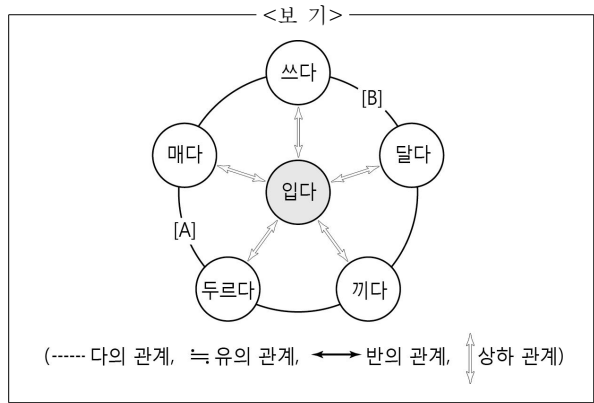
- ① 글짓기 ② 나들이 ③ 달리기 ④ 들기름 ⑤ 웃음보

1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가 시작된 시각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3점]

— <보 기> —
엄마: 아까 낮에 형과 전화하던데, 무슨 이야기 했니?
아들: 형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도착해 보니 영화가 곧 시작되겠다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 늦지 않게 영화를 봤겠지?
아들: 네, 그럴 거예요.



14.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입다’와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끼다’와 어울리는 대상은 장갑이나 반지 등이 있다.
- ② “이번 태풍으로 농가에서 큰 피해를 입다.”의 ‘입다’는 <보기>의 ‘입다’와 다의관계이다.
- ③ [A]에는 “스카프를 매다.”와 “스카프를 두르다.”가 모두 성립된다는 점에서 ‘≡’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입다’와 상하관계에 있는 ‘쓰다’와 ‘달다’는 서로 반의관계라는 점에서 [B]에는 ‘↔’이 표시된다.
- ⑤ “옷에 이름표를 달다.”와 “옷에 이름표를 붙이다.”가 통한다는 점에서 ‘붙이다’를 ‘입다’와 상하관계로 볼 수 있다.

15. 다음 대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학생은 발화의 상황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 ② 아주머니와 학생은 대화를 통해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하고 있다.
- ③ 학생은 아주머니에게 발화에 담긴 내용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④ 아주머니는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중요시하고 있다.
- ⑤ 아주머니는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풍수(風水)는 지형을 통해 바람과 물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살피는 전통 사상으로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땅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어떤 곳에 사는가에 따라 인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환경 결정론적 입장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풍수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의 자장 율사에 대한 것이다. 당에서 유학하였던 그는 풍수 이론을 도입하여 그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선덕 여왕의 능지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풍수는 왕실과 불가(佛家) 등 지배 계층에게만 독점된 사상이었다.

고려 시대에 들어서면서 풍수는 국가를 위한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의 통치 기준인 왕건의 ‘훈요 10조’를 살펴보면 풍수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왕권과 지속적으로 밀착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쓰였다. 특히 사원의 건립과 천도(遷都) 문제,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표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는 풍수가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말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도참사상(圖讖思想)과 결합하여 민간에까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화장 문화를 중시한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와 달리, 조선 시대에는 유학을 중심으로 매장 문화가 확산되면서 풍수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특히 발복(發福)*의 목적과 연관이 되면서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위로는 수도와 궁궐 및 왕릉의 위치 선정에, 아래로는 촌락의 입지와 집터의 선정, 선조의 묘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동학 농민 운동이나 민란과 관련된 설화에서도 풍수의 흔적이 나타난다.

이렇듯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풍수는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 왔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사계절에 따라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을 살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찾고자 했던 조상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풍수에서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추구하는 요즘의 ㉠생태론적 세계관과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 발복(發福): 운이 터져서 복이 닥침.

16. ‘풍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례 문화의 변화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② 조선 후기 사회 변혁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③ 자장 율사에 의해 신라 시대에 당나라에서 도입되었다.
- ④ 시간이 경과하며 지배층에서 피지배층으로 전파되었다.
- ⑤ 고려 시대 국가적인 사업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17. ㉠과 유사한 사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② 세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를 바꾸는 것이다.
- ③ 대지는 선조의 유산이 아니라 자손에게서 빌린 것이다.
- ④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산속의 난초는 향기를 발한다.
- ⑤ 도는 하늘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18. <보기>는 ‘훈요 10조’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2훈 사원을 함부로 지으면 땅의 기운을 손상시켜 국운을 해롭게 하므로 풍수 하는 자가 정하지 않은 곳에 함부로 사원을 짓지 마라.

제5훈 ‘평양’은 물의 기운이 편안하여 만년을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므로 후대 임금들은 사계절마다 들러 100일을 머물러야 안녕하다.

- ① 제2훈에서 땅의 기운과 관련하여 사원을 함부로 짓지 말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풍수를 통해 사원의 무분별한 건립을 예방하려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② 제2훈에서 국운과 관련하여 풍수 하는 자가 선택한 지역에 사원을 지을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풍수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제5훈에서 평양을 풍수상의 명당으로 언급함으로써 평양의 정치적 중요성을 후대 임금들에게 인식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군.
- ④ 제5훈에서 국가의 안녕과 관련하여 왕이 사계절마다 평양에 머물러야 함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계절에 따라 순환하는 평양의 자연을 살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각 훈에서 땅의 기운, 물의 기운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풍수를 근거로 하여 국가적 통치 기준을 세웠음을 알 수 있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불꽃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불꽃을 초기에 발견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이다. 주로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도로나 터널, 격납고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불꽃 감지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불꽃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한 불꽃을 자연광이나 인공조명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불꽃 감지기는 연소하는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을 분석하여 화재 여부를 판단한다. 고온의 물질이나 연소하는 물질은 특정 파장에서 최대치 에너지를 방사하는데, 불꽃 감지기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를 감지하여 화재 여부를 판단하고 경보를 울린다.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자외선, 적외선 등의 파장이 검출된다. 이에 따라 불꽃 감지기의 종류에는 자외선 감지 방식과 적외선 감지 방식이 있다. 자외선 감지 방식은 가격이 싼 대신에 형광등, 태양광, 용접 불꽃 등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 반면 적외선 감지 방식은 가격은 비싸지만 자외선 방식에 비해 오작동이 적어서 화재가 우려되는 곳에 많이 설치된다.

적외선 감지의 대표적 방식으로는 플리커 검출 방식과 2파장 검출 방식이 있다. 플리커 검출 방식은 불꽃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의 깜박거림인 플리커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이나 인공조명에 비해 화재 시 발생하는 불꽃은 깜박거림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불꽃 흔들림의 변화량을 검출하면 화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2파장 검출 방식은 두 개 이상의 파장을 동시에 검출하는 방식이다. 화재 불꽃의 경우 $2\mu\text{m}$, $4.4\mu\text{m}$ 부근에서 두 번의 방사를, 도시 가스 불꽃의 경우 $2\mu\text{m}$, $3\mu\text{m}$, $4.4\mu\text{m}$ 부근에서 세 번의 방사를 보이기 때문에 2파장 검출 방식에서는 이것을 모두 화재로 판단한다. 반면 햇빛은 $0.44\mu\text{m}$ 에서, 전기난로와 같은 고온의 물체는 $2\mu\text{m}$ 부근에서만 강한 에너지 방사를 보이기 때문에 2파장 검출 방식에서는 화재로 판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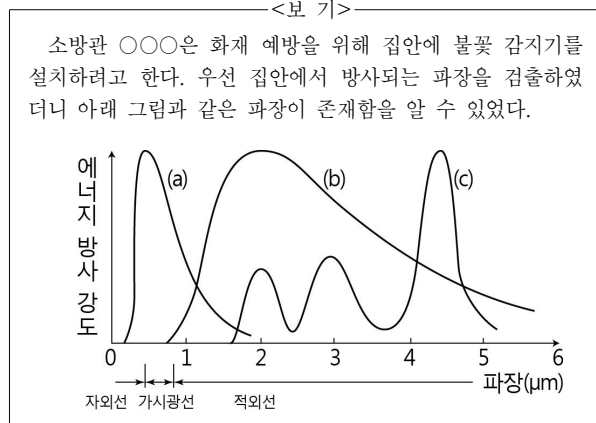
①적외선 방식의 불꽃 감지기는 천장이나 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는데 제품의 감지 방향을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꽃이 잘 감지되는 방향으로 설치하되 감지 목적물과 감지기 사이에 감지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가스레인을 사용해도 가스레인지 불꽃에 감지기가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는 가스레인지와 가까운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한 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간이 넓어서 전체를 감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9. ‘불꽃 감지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
- ② 구조
- ③ 종류
- ④ 설치 장소
- ⑤ 작동 원리

20. 윗글로 볼 때 <보기>의 소방관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를 고려하여 자외선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해야겠군.
- ② (b)를 방사하는 물체 때문에 2파장 검출 방식의 감지기가 오작동 하겠군.
- ③ (c)로 인한 오작동을 막으려면 자외선 감지기를 설치해야겠군.
- ④ 2파장 검출 방식의 감지기에서는 (a)와 (b)를 화재로 판단하지 않겠군.
- ⑤ 플리커 검출 방식의 감지기로는 (a)와 (c)를 구분할 수가 없겠군.

21. ㉠의 설치상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치상 유의점

- ① 장애물을 피해 설치하세요.
- ② 불꽃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세요.
- ③ 넓은 곳에는 다수의 감지기를 설치하세요.
- ④ 발열 물질에 설치할 경우 밀착하여 설치하세요.
- ⑤ 감지기를 부착면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하세요.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사회는 권위적 위계 사회에서 민주적 개방 사회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과거 경제의 패러다임은 천연자원과 같은 유형의 자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오늘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국가 신뢰 지수가 10%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0.8%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설명하는 경제학 용어가 사회적 자본이다. 경제학자 제임스 콜만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관계 형성에 따른 거래 비용의 감소와 효용의 극대화로 정의한다. 한편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으로 규정한다. 무형의 자본인 신뢰, 소통, 협력은 사회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윤활유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경제학자 조이스 버그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신뢰 게임(Trust Game)'이라는 것을 고안해 냈고 국내에서도 이를 토대로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팀은 10,000원을 제안자에게만 지급한다. 제안자는 응답자에게 보낼 금액을 결정한다. 연구팀은 제안자가 보낸 금액의 3배를 응답자에게 지급한다. 응답자는 다시 제안자에게 되돌려 줄 금액을 결정한다. 연구팀은 응답자가 [A] 되돌려 준 금액을 제안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제안자나 응답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금액을 독차지하고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 그런데 실험 결과, 놀랍게도 제안자는 평균 75%의 금액을 응답자에게 주었고, 응답자 역시 받은 금액의 평균 50%를 제안자에게 되돌려줬다.

이 신뢰 게임의 결과를 통해 경제학적 관점을 뛰어넘는 신뢰의 놀라운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인간이 냉정한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기존의 생각과 달리 본성적으로 타인을 믿고 나누려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찾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호모에코노미쿠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동하는 인간

2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신뢰 지수와 거래 비용은 반비례한다.
- ② 천연 자원과 같은 유형의 자본을 포함한다.
- ③ 중요성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르다.
- ④ 인간의 호모에코노미쿠스적 성향을 잘 보여준다.
- ⑤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체제를 가속화시킨다.

23. <보기>는 [A] 실험의 일부를 정리한 표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단위: 원)

사례	제안자가 준 금액	응답자가 받은 금액	응답자가 되돌려 준 금액	제안자의 최종금액
(가)	3,000	9,000	3,000	()
(나)	5,000	()	7,000	12,000
(다)	0	0	0	()
(라)	10,000	30,000	17,000	17,000
(마)	6,000	18,000	0	4,000

- ① (가)의 제안자의 최종 금액은 10,000원이군.
- ② (나)의 응답자가 받은 금액은 15,000원이군.
- ③ (다)의 제안자의 최종 금액은 변하지 않았군.
- ④ (라)의 응답자가 보인 신뢰도가 (나)보다 낮군.
- ⑤ (마)의 응답자는 신뢰에 전혀 보답하지 않았군.

24. 윤활유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역할
- ②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
- ③ 경제학자들의 관점을 통합하는 역할
- ④ 인간의 본능적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
- ⑤ 경제 주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기가 있는 지역이나 폭포가 있는 계곡에 서식하는 옹화반 식물(학명: Splash-cup plant)은 지름 3~5mm의 원뿔형 꽃 속에 작고 가벼운 씨앗이 있다. 이 식물은 평균 높이가 10cm 정도로 작지만 놀랍게도 그 10배의 거리까지 씨앗을 퍼뜨린다.

이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꽃의 모양과 유사한, 아래로 향하는 원뿔 모형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씨앗을 원뿔의 꼭짓점에 놓고 빗방울과 크기 및 속도가 같은 지름 2mm 정도의 물방울을 떨어뜨려 비가 오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모형의 각도(θ)를 30° 에서 65° 로 5° 씩 변화시키며 8개의 모형으로 실험한 결과, 각도가 40° 일 때 씨앗이 가장 멀리 날아갔다. 이는 에너지의 역학적 관계 때문이다. 원뿔형 구조이기 때문에 물방울은 모형의 경사면에 각도를 가지며 떨어진다. 경사면에 물방울이 닿는 순간에 물방울은 내부의 표면에 퍼지면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물방울이 가지는 중력의 힘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내부에서 미끄러진다. 원뿔의 구조에 의해 물방울은 중앙을 향해 미끄러지게 되는데, 그러면 중앙에 있던

[A] 작고 가벼운 씨앗이 물과 함께 모형 밖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각도가 40° 일 경우,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며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이 가장 적어서 미끄러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물방울이 중앙에 떨어졌을 때보다 경사면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더 멀리 날아갔다. 물방울이 원뿔의 정중앙에 떨어졌을 때에는 에너지가 사방으로 거의 동일하게 분산되면서 원형이 되지만, 경사면에 떨어졌을 때에는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서 비대칭 타원이 되기 때문이다. 경사면의 물방울은 비대칭적으로 퍼지면서 떨어진 위치의 반대 방향으로 더욱 멀리 튀어 나간다.

옹화반 식물들의 꽃잎 경사면은 $40^\circ \sim 60^\circ$ 사이이다. 이는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가장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경사면의 각도로서, 빗방울의 힘을 ①빌려 씨앗을 최대한 멀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옹화반 식물이 서식 지역의 기후 특성에 적응하면서 번식에 유리한 최적의 형태로 진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식물들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씨앗을 퍼뜨리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식물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이유이다.

25.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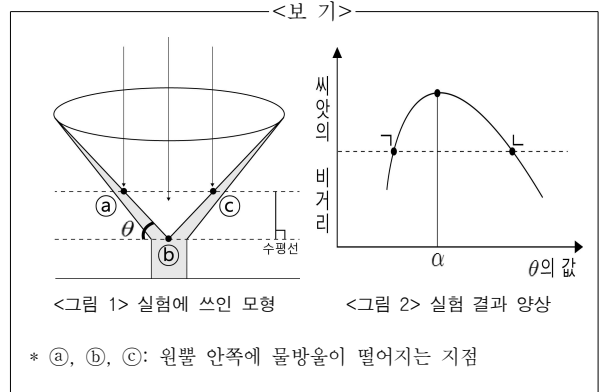
- ① 상식에 근거하여 특정 현상을 설명하려고
- ② 특정한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 ③ 특정 현상을 다른 학자의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 ④ 두 이론의 장점을 취하여 새로운 이론을 세우려고
- ⑤ 구체적 현상에 나타난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26. 윗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지역의 기후와 그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구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연구하고자 했군.
- ② 물방울이 씨앗이 날아가는 데 역학적인 작용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군.
- ③ 실험을 위하여 다양한 옹화반 식물들을 조사해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 모형을 만들어야 했겠군.
- ④ 실험의 원리를 알기 위해 물방울이 떨어지는 각도와 위치라는 두 개의 변인을 사용하였군.
- ⑤ 물방울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 꽃의 내부에서 변화하는 물방울의 모양을 관찰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군.

27.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그림 1>의 ②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①과 ③에 작용하는 에너지는 같겠군.
- ② <그림 1>의 ①에 물방울이 닿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겠군.
- ③ <그림 1>의 ①에 물방울이 떨어질 때와 ③에 떨어질 때 씨앗이 날아가는 방향은 반대이겠군.
- ④ <그림 2>의 α 는 씨앗의 비거리가 최대치인 지점이므로 40° 에 해당하겠군.
- ⑤ <그림 1>의 ①에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측정값이 <그림 2>의 α 이라면 ③에 떨어졌을 때 측정값은 α 에 해당하겠군.

28. ①을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용(利用)하여
- ② 응용(應用)하여
- ③ 도용(盜用)하여
- ④ 대용(代用)하여
- ⑤ 남용(濫用)하여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번 시험 범위에 「홍부전」이 들어 있지? 어디 한 번 꼼꼼하게 교과서를 읽어볼까? 원문을 그대로 옮겼는지 한자어가 꽤 많은걸! 사전을 찾아보면서 읽어야겠다. 홍부가 생계 때문에 매를 파는구나. 당시에는 생계 때문에 다른 사람 대신 매를 맞아주는 일들이 비밀비재했다던걸. 아, 이제 홍부 부부가 박을 타는 장면이네. 온갖 보물이 쏟아지는구나. 홍부에게 이제 봄날이 왔구나. 홍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겠군. 그렇지만 당시 홍부가 처한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 감상적 독해는 독자가 글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는 것이다.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내면화한다. 독자는 글 속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희로애락(喜怒哀樂)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때로는 등장인물과 동일시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자는 깨달음을 얻거나 정서가 순화되는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29.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독서는 지역과 지역이 만나는 사회적인 소통 행위이다.
- ② 독자는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독서를 한다.
- ③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독서를 한다.
- ④ 같은 글이라도 읽는 독자의 가치관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 ⑤ 독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식과 문화를 접하게 해 주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30. (나)의 관점에서 (가)의 사고과정에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박을 탔더니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설정인 것 같아.
- ②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홍부전의 줄거리를 고려한다면 위기와 절정으로 볼 수 있겠네.
- ③ 박에서 온갖 보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홍부가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었을지 공감이 돼.
- ④ 놀부 외에 악한 인물을 하나 더 등장시키면 극적 요소를 더하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 ⑤ 홍부가 복을 받는 과정을 통해 글쓴이는 선과 악의 대립 구도에서 선이 승리함을 이야기하고 싶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자기 다급한 천둥소리에 수정궁이 몹시 흔들리고 시녀가 급히 고하되,

“큰 화가 생겼나이다. 남해 태자가 무수한 군병을 거느려 맞은편 산에 진을 치고 양 원수와 자웅을 겨루고자 하나이다.”

용녀가 상서를 깨워 말하되,

“내 처음에 남군을 머물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염려했기 때문이라.”

상서가 크게 노하여 왈,

“남해 태자는 어찌 이렇듯 무례하리오?”

소매를 떨치고 말에 올라 물 밖으로 솟아오르니 남해 군병이 백룡담을 에워싸거늘 상서가 삼군을 지휘하여 태자와 맞섰다.

남해 태자가 말을 타고 박차 나가면서 꾸짖어 말하되,

“양소유는 사람의 인연을 가로막아 남의 혼사를 망치고 남의 처자를 겁탈하였으니 맹세코 너와 더불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상서가 또한 말을 달려 크게 웃고 말하되,

“동정 용왕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소유를 따르기로 하늘에서 정한 바 있으니 나는 다만 천명에 순종할 따름이라.”

태자 크게 노하여 모든 병사를 몰아 상서를 잡으라 했다. 제독과 별참군이 뛰어서 달려드니 상서가 백옥편을 한 번 들자 당나라 진중에서 일만 개의 화살이 동시에 발사되어 깨어진 비늘과 쇠잔한 껍데기가 땅에 가득하여 마치 눈이 날리는 듯하더라. 태자가 두어 군데 상처를 입어 변신을 하지 못하여 결국 잡히니 상서가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고 태자를 결박하여 진중에 돌아오니라. 문지기가 아뢰되,

“백룡담 낭자가 친히 군대 앞에 나와 원수께 하례하고 장사들을 대접하고자 하나이다.”

상서가 매우 기뻐하며 청하여 들어오게 하니 용녀가 싸움에서 이긴 것을 하례하고 일천 섬의 술과 일만 마리의 소로 군사를 대접하니 군사들이 배불리 먹고 즐겨 노래 부르는 소리가 진동하더라.

양 원수가 용녀와 같이 앉고 남해 태자를 잡아 들어오니, 감히 우리러보지 못하자 꾸짖어 말하되,

“내가 천명을 받자와 오랑캐를 평정하니 온갖 신명이 명령을 거역하지 않거늘 어린아이 망령되게 천명을 알지 못하고 항거하니 이는 스스로 죽고자 함이라. 나의 허리에 찬 보검은 옛날 위정(魏徵) 승상이 경하(涇河)의 용을 벤 것이라. 너의 머리를 베어 삼군을 호령할 것이로되, 너의 아버지가 남해를 진정시키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있는 까닭에 용서하니 돌아가 이후로는 천명에 순종하고 망령된 마음을 먹지 마라.”

군중에 있는 약을 내어 태자의 상처에 바르게 하고 놓아 보내니 태자가 머리를 싸고 쥐가 숨듯이 돌아가니라.

[중략 줄거리] 동정 용왕은 양소유가 남해 태자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양소유를 청하여 동정 용궁에서 잔치를 열어 크게 대접한다.

용왕이 상서를 궁전 문밖에서 송별하더니 상서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산이 높고 빼어나 다섯 봉우리가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에게 묻되,

“이 산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이까? 소유가 천하를 두루 다녔

지만 오직 화산과 이 산을 못 보았나이다.”

용왕이 대답하되,

“원수가 이 산을 모르시도소이다. 이 곧 남악 형산이다.”

상서가 왈,

“어떻게 하면 저 산을 볼 수 있으리까?”

왕이 왈,

“날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 갈 수 있으리이다.”

상서가 수레에 오르니 이미 산 아래에 이르렀더라.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거루어 흐르니 두루 구경할 거리가 없더라. 한탄하여 말하되,

“언제 공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문득 바람결에 종소리 들리거늘 절이 멀지 않은 줄 알고 따라 올라가니 어느 절이 있는데 건물이 극히 장려하였다. 노승이 당상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청수하여 세상 사람이 아닐러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 상서를 맞으며 말하되,

“산에 사는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고 멀리 나가 맞지 못하니 이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가 아직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으면 전(殿)에 올라 예불하소서.”

상서가 향을 피워 부처 앞에 절하고 전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실족(失足)하여 엎어졌고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몸은 영중에서 의자에 의지하였고 날이 이미 밝았더라. 상서가 장수들을 모아 묻되,

“너희들은 밤에 무슨 꿈을 꾸었느냐?”

모두 대답하되,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사들과 싸워 이기고 장수를 잡았으니 이 분명 오랑캐를 멸할 징조로소이다.”

상서가 매우 기뻐하며 꿈을 이야기하고 장수를 거느려 백룡담 위에 가보니 고기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피가 흘러 냇물이 되었더라.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못의 물을 떠 마시고 병든 군병을 먹이니 즉시 좋아지거늘 그제야 군병과 말을 일시에 먹이니 즐거워하는 소리 우레 같더라. 양소유와 대적하여 싸우던 오랑캐 병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항복하고자 하더라.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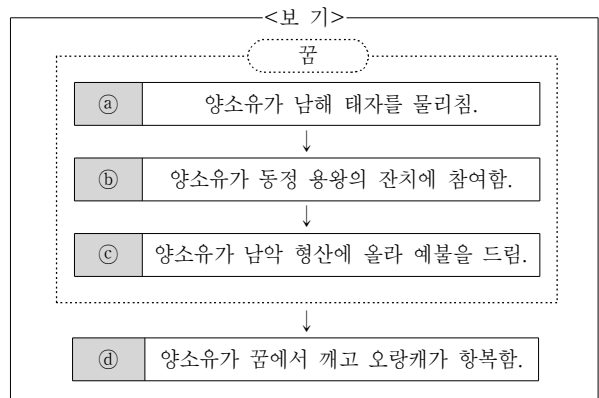
3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남해 태자는 원수의 관용을 거절하고 끝까지 저항하였다.
- ② 상서는 백룡담 물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먼저 마셔 보았다.
- ③ 노승은 상서가 형산에 찾아올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다.
- ④ 장수들도 상서와 함께 예불에 참여하여 승리를 기원하였다.
- ⑤ 용녀는 상서가 남해 태자를 물리칠 경우 보상을 약속하였다.

32. [A]의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도감을 주려고
- ②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 ③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 ④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 ⑤ 오랑캐 토벌의 정당성을 알려주려고

33. <보기>는 윗글의 서사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d의 공간적 배경은 동일하다.
- ② a의 실제 여부는 d에서 확인된다.
- ③ a~d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 ④ c에서 저항하는 삶을 위한 과정이 d에 나타난다.
- ⑤ a~c는 d와 달리 신비로운 체험이 나타난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엇그제 겨울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 [A]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홍이야 다를쏘나
 사립문 앞을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한데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아는 사람 없이 혼자로다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하세 ——— [B]
 아침에 산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
 이제 갓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 놓고 ——— [C]
 꽃나무 가지 꺾어 수를 세며 마시리라 ———
 화풍(和風)이 문득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D]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이라
 소동(小童) 아이더러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동이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들이 그 곳인가
 소나무 사이의 좁은 길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촌락이 곳곳에 벌여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 [E]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넘치는구나 ———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단표누향(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하네
 아모다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하면 어떠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 소요음영: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림.
- *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즐거움.
- * 미음완보: 나직이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 *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 * 단표누향: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을 이룸.
- * 백년행락: 한평생 즐겁게 지냄.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념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생활과 밀착된 주제를 다룬다.
- ② 자연에서 사는 삶을 노래하여 강호가사에 영향을 끼쳤다.
- ③ 연속된 4음보의 율격으로 안정된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양반 사대부에 의해 창작되어 한자어의 사용이 많다.
- ⑤ 마지막 행의 형식이 시조의 중장 형식과 유사하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자연물을 이용하여 계절적 정서와 상반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탈속적 삶에 동참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 ③ ㉢: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자연과 동화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관용적인 연상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사 문학은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지냈던 삶의 양식이나 그들의 사유체계를 잘 담고 있다. 「상춘곡」에는 ‘절제와 균형’이라는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사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① [A]: ‘석양’과 ‘세우’의 하강 이미지 속에 피어나는 ‘꽃’과 파랑게 뜬 ‘풀’의 상승 이미지는 조화를 이루고 있군.
- ② [B]: ‘오늘’과 ‘내일’로, ‘아침’과 ‘저녁’으로 봄놀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안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군.
- ③ [C]: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으려고 ‘꽃나무 가지’로 술잔을 세는 모습에서 사대부의 절제된 풍류가 느껴지는군.
- ④ [D]: 술과 더불어 ‘청향’과 ‘낙홍’에 취해 고조되는 감정을 ‘진다’는 표현을 통해 다스리는군.
- ⑤ [E]: ‘검은 들’이 ‘봄빛’으로 넘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합일을 이루어 감을 의미하는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강원도 원산이 고향인 나는 6·25가 나던 1950년에 18세의 고3 학생으로 북한군에 입대했다가 그해 10월에 강원도 양양에서 포로로 잡힌다. 국군 헌병의 감시를 받으며 50여 명의 포로와 함께 이동하던 중 집안이 과수원을 했다는 것과 동갑내기 동생이 있다는 이유로 인솔자의 우두머리 격인 평안도 진남포 출신 헌병과 가까워진다.

주문진에서 관리 헌병들도 몽땅 바뀌어 하나같이 낯선 새사람들을 만난 우리 일행은 다시 곱쟁이로 힘이 들었다. 비록 관리자와 피관리자 사이일망정, 생판 낯선 사람들보다는 다만 사흘이라도 익숙해진 사람들 쪽이 건디기가 한결 편한 것이다. 활용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의 극히 하잘것없는 무의식중의 행태나 거취 하나가 와락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을 몰아오는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들을 관리하는 일에서 놓여난 뒤 원산의 군단본부로 올라간다면 그 몸집 좋은 진남포 사람 헌병은 막아 지프차에 올라타려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이 둘레둘레 우리 쪽을 둘러보곤, 내 모습이 눈길에 잡히자 부러 나 있는 쪽으로 걸어오기까지 하여 내 어깨를 한 번 툭 치면서 헤어지는 인사 겹 가볍게 한 마디 했던 것이었다.

“어저께두 니 얘기했지만 원산까지만 암튼지 올라오라우. 요행 그때까장 내가 군단본부에 그냥 있게 되면 내가 힘 써설라므니 너 하나쯤 현저서 빼줄 수도 있따구.”

이 정도로 과남한 대접을 받아도 과연 되는 것인지, 나는 오직 황감해져서 잠시 어떨 줄을 몰라 하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 내가 살았던 이북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닥쳐서 이런 언동을 내놓고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장 조직을 규율을 무시한 반동적 부르주아 행태로 혼쭐나게 비판을 당하게 된다. 이때도 나는 이북과는 다른 남쪽 세상의 개개적으로 활발한 **자유로움**을, 사람살이의 그 본원적인 신선함을 흘깃이나마 선망 섞어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떠나기 전에 그 진남포 사람이 별 깊은 생각 없이 슬쩍 나한테 남긴 이 한 마디는 그 뒤의 나에게 엄청난 **행운**을 안겨다 주었던 것이다. 새로 갈린 관리 헌병들마다 하나같이 나한테만은 처음부터 조금 특별하게 대해주었다. 그 사례들을 꼭 집어내서 일일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와 비스듬한 경우에 닥쳐본 사람이면 대뜸 공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살이의 세부세부 실제 국면은, 사실은 하나하나 분명하게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가려지기 보다는, 당장 드러나 있는 그런 식으로 단지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이 세계란, 그렇게 있는 것의 전부이다.’ 그리고 ‘세계는, 여러 사실에 의해서, 그것 모두가 사실이 되어 있다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사실의 전 부야말로, 바로 그렇다는 것도,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의 모든 것도, 결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말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새 헌병들로 교체된 그날부터, 그러니까 주문진에서 다시 복상의 길로 접어든 그날 아침나절부터, 어느새 슬그머니 관리 헌병들과 우리 포로들 간의 창구(窓口)역 비슷이 되어져 있었고, 특별한 대우래왔자 끼니 때 어찌다가 남는 밥덩이 하나 더 얻어먹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그때의 그것을 오늘의 현실세로 치자면 몇 십 억짜리 빌딩 하나의 값보다도 비싸게 치일 수가 있었다.

그날 느지막이 우리 일행이 간성에 닿아 하룻밤 목을 잠자리가 대강 정해지자, 웬 낯선 헌병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섰다. 엇비슷하게 몸집이 컸지만, 주문진에서 헤어졌던 그 진남포 사람에 비하면 첫눈에도 조금 물렁물렁하고 어딘가 손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아마도 바로 며칠 전에 수복된 간성읍의 현지 주둔 헌병이 아닌가 싶었다. 말하자면 국군 헌병으로 달랑 혼자 주둔하면서 간성 인근의 점령지구 행정 일체를 임시로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뒷짐을 처먹고 선 그는,

“야야 그 전깃볼 꺼라. 아직 해도 안 떨어졌는데 웬 놈의 전깃볼이야. 전긴 어디 공꾼 줄 아냐. 아무리 부자 나라 양키들, **㉔코쟁이** 것이긴 할망정.”

하고 꾸얼꾸얼하였는데, 이때도 나는 흘깃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다. ‘인공’ 치하 이북에서도 소련* 병사들을 두고 항간에서는 흔히 ‘**㉕로스께**’라는 비칭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규모야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공적인 성격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러지를 못하였다. 조소 친선이라는 **공식적인** 태두리가 사회 말단 조직에까지 속속들이 돌리어져 있었던 것이어서, 그런 비칭을 쓰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람들마다 조금은 조신을 하며 주위 눈치를 보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남쪽은 그런 것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툭 터져 있어 보였다. 당국 눈치 보지 않고도 제각기 하고 싶은 소리를 텅텅 할 수가 있는 듯이 보였다. 지난 5년 동안 북쪽 세상이지만 살아온 나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 점이 꽤나 회한하게 여겨지며 벌써 이 남쪽 세상의 ‘자유’라는 것의 윤곽이 어영부영 살갓 깊숙이 신선하게 와 닿았다.

- 이호철, 「남녘 사람 북녘 사람」 -

* 소련: 현재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소비에트 연방국가
* 로스께: 러시아인에 대한 호칭인 'Russky'에서 유래된 말

37.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 당시의 학생 말투로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인물의 발언을 내용 전개의 실마리로 삼고 있다.
- ③ 지속되는 생각을 긴 문장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사건을 체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덜어내고 있다.

38. ㉔와 ㉕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㉕
① 지시 대상	미국인	소련인
② 조어 근거	신체적 특징	발음의 유사성
③ 사회적 제약	적음	많음
④ 사용 빈도	낮음	높음
⑤ 발화자 심리	부정적	부정적

39. <보기>를 참고할 때 [A]를 통해 서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부엉이가 낮이 지나고 밤이 되어 서야 그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어떤 사건의 의미는 사건이 다 끝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뜻이다.

- ① 헌병의 직접적인 배려는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되었다.
- ② 지금 생각해보니 헌병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 ③ 당시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의 포로 생활에 특혜가 생길 줄 몰랐다.
- ④ 헌병의 권유로 인해 내가 남한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인식이 바뀌었다.
- ⑤ 지금에서야 헌병의 한마디가 나의 사고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았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호철은 북한 출신으로 6·25 때 북한군에 입대해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후 단신으로 월남하였다. 이러한 체험은 북한을 인간이 사회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로, 남한을 인간이 본원적인 면에서 자연인으로 인식되는 사회로 비교하여 고찰하는 작품 창작의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여타의 6·25를 다룬 소설과 달리 외부인의 시각으로 남한 사회의 첫인상을 그리고 있는 대목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① 나의 ‘당혹감’은 북한 사회의 가치관에 어긋난 헌병의 행동에서 비롯되는군.
- ② 나의 ‘행운’이 남한 사회를 외부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동기가 되었겠군.
- ③ 나는 남한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본원적인 사람의 ‘자유로움’에서 발견하고 있군.
- ④ 사회 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북한 사회의 ‘공식적인’ 삶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⑤ 제목에서 ‘북녘’으로 잘못 쓴 것은 ‘남녘’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표기겠군.

-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 수용소의 제십사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늬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일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 * 야경꾼: 밤 사이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 * 너어스들: 간호사들

41. ㉠~㉣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③ ㉢: 의도적 행각이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 ④ ㉣: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동일 시구의 반복과 변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상적 제재와 비속어의 사용은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본 김수영 시의 특징이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비판 정신은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된다.

- ①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표현은 설령탕집 주인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겠군.
- ②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소시민성에 대한 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③ ‘전통은 유구’하다는 인식은 과거 자신의 처신에 대한 정확한 응시에 근거한 것이겠군.
- ④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기존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라 하겠어.
- ⑤ ‘나’의 반성은 자기비판을 넘어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될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한상궁은 수라간 최고상궁 자리를 놓고 벌어진 첫 번째 경합에서 패하자 제자 장금에게 좋은 재료와 비법만 찾으려 한다면 꾸짖고 보모상궁이 요양 중인 곳에 수발을 들러 갈 것을 명한다. 위독한 보모상궁은 어릴 적 돌아가신 오라버니가 주었던 고소하고 쫄쫄거리는 생쌀을 죽기 전에 다시 맛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장금은 이를 구하기 위해 애쓴다.

S# 79 처사 집(낮)

찢 나락을 처사가 별에 정성껏 넣고 있다. 이때 장금이 뛰어와서는 처사가 넣고 있는 쌀을 씹어 먹어 본다.

장금 이 쌀을 제게 조금만 주세요.

처사 이걸 안 돼유.

장금 왜요? 언제 돌아가실 지 알 수 없어요. 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 맛을 보여드려야 해요.

처사 사정은 알겠는데 아직은 맛이 안 되는데...

장금 처사님...

처사 이걸 바짝 말려서 방아 찌서 먹는 것인디유.

장금 제가 빠른 방법으로 말리겠습니다!

처사 ㉠별이 좋아도 나흘 이상은 말려야 맛이 나는 건디유.

장금 (이미 포대에 주워 담고 있고)

S# 80 처사 부엌(낮)

㉡장금은 연신 아궁이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숯뚜껑을 뒤집어 놓은 위에 올버를 올려 말리고 있다.

장금 사흘이나 별에 말릴 시간이 없어요. 장작 좀 더 갖다주세요.

덕구 이렇게 말리면 금방인 걸. 그 처사놈은 청일 넣고 거두고 넣고 거두고...

썩 웃어 보이곤 계속 부채질을 하는 장금.

S# 81 보모상궁 방(밤)

힘겹게 일어난 보모상궁에게 쌀을 쥐어 준다. 장금, 덕구, 정호, 정운수 유심히 보는데...

장금 드셔 보세요. 마마님이 찾은 그 쌀일 겁니다.

보모상궁 (한줌 입에 넣고는 씹으며 희미하게 웃는다.)

장금 (불안해선) 왜요? 아녘니까?

보모상궁 맞는 거는 같다.

장금 현대요?

보모상궁 그 맛이 안 나! 오라버니에게 드리기는... 어쨌든 고맙구나.

흔쾌한 반응이 아니자 모두들 조금씩 실망하는데...

(중 략)

S# 84 보모상궁의 방(밤)

㉢장금이 보모상궁을 안아 탕약을 먹이고 있는데... 정말 임종할 때가 된 듯 힘이 없다. 보는 정운수와 덕구, 정호.

처사 (E.) 저 혹시 들어가도 돼유?

정호 들어오세요.

처사 저기... 올게쌀이 다 돼서...

하고는 ㉣올게쌀 한 줌을 보모상궁에게 올린다.

처사 딱딱하니 꼭꼭 씹으셔유.

보모상궁이 받아서는 입에 넣고 힘들게 힘들게 씹는데... 천천

히 아주 천천히 웃음이 번지는 듯하더니 희미한 웃음 속에 어느새 주르르 눈물이 흐르고...

보모상궁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제 저는 이승을 떠도 되겠습니다. 제가 갈 때 이 쌀을 제 관에 꼭 넣어 주십시오. 오라버니에게 드려야 합니다.

보는 모두들. 장금은 뭔가 깨달은 듯 멍한데... 보모상궁은 회한의 눈물을 펄펄 쏟으며 쌀을 찹고 또 찹고.

S# 85 사찰 부엌(밤)

장금이 들어온다. 그리고는 처사의 올게쌀을 먹어 본다. 맛을 본 장금의 표정이 굳어지는데...

장금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맛있던 나물도. 마마님의 한을 풀어드린 그 쌀도. 그냥 좋은 별에 말리고, 거두고, 말리고, 거두고... 그 정성과 시각...

처사 그렇다니께유. 우리 업니가 그랬슈. 어차피 음식으로 배 부르게는 못 먹으니께... 정성이라도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르다구유... 그러니 아무리 급해도 덜된 거 대충 얼버무리서 남 먹이지 말라구유...

S# 86 운암사 일각(밤)

장금과 정호가 앉아 있다.

장금 이제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실은 스승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과가 나뉘기에... 늘 칭찬하셨던 저의 재기도 평가하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노력했으니까요.

정호 ...

장금 근데 아닙니다. 그때 제가 한 노력은 이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 여기 와서도 저는 남의 비법이나 알려달라는 노력뿐이었습니다.

정호 ...

장금 현대 비법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거기에 들어간 땀과 정성만이 비법이었습니다. 돌아가실지 모르니 잔수라도 써 어땀게든 드러보자 한 제 쌀은 마마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우직한 처사의 쌀이 마마님을 움직였습니다.

정호 ㉔...

장금 하여 저의 재기가 저에게 독이라 하신 겁니다. 재기만 승한 사람이 될까 봐요.

정호 참으로 좋은 스승님을 두셨습니다. 목표를 이룬다는 핑계로 서 나인이 편법적인 삶을 살자 두려워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전 믿습니. 잠시 실수는 했을지 모르나 서 나인은 먹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버릴 분이 아니라는 걸...

- 김영현, 「대장금(大長今)」-

4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보모상궁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② 처사의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③ 장금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상궁의 숨은 뜻을 알게 된다.
- ④ 장금은 정호를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장금과 덕구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다.

44.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윤오영의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에 등장하는 ㉠나는 40여 년 전, 동대문에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노인에게 방망이를 부탁한다. ㉡노인은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계속 깎기만 하며 녹장을 부리는 것이었다. 다급해진 나는 더 필요 없으니 그냥 달라고 하자 노인은 화를 버럭 내며 그렇게 조급해 할 거면 팔지 않겠다고 한다. 결국 노인을 기다려 방망이를 산 나는 차를 놓치게 되고 고집스럽고 불친절한 노인이라고 화를 낸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잘 깎은 방망이를 샀다며 매우 기뻐하고, 나는 비로소 노인의 장인 정신을 깨달으며 자신을 반성한다.

- ① 장금과 ㉠는 결국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게 된다.
- ② 처사는 ㉡의 태도 변화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 ③ 처사와 ㉢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 대조적인 자세를 보인다.
- ④ 보모상궁과 ㉢는 결과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 ⑤ 장금과 처사의 인물 관계는 ㉡와 ㉢의 관계와 유사하다.

45. 윗글을 드라마로 제작한다고 할 때, ㉠~㉢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장금에 대한 처사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하도록 해야겠군.
- ② ㉡: 장금의 마음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빠른 손놀림을 부각해야겠군.
- ③ ㉢: 보모상궁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떠 넣은 약이 조금 입가로 흘러내리는 장면을 보여줘야겠군.
- ④ ㉢: 방안의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 처사의 끈게 편 등과 보모상궁의 웅크린 몸을 한 화면에 담아야겠군.
- ⑤ ㉢: 정호의 장금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잔잔히 웃는 얼굴을 보여주어야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